

전북현대, 맨시티와 친선경기 무산

심판 매수 의혹 등 어수선한 분위기속 자숙 판단 따라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이 추진했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명문팀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와의 친선경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새로운 사령탑 펠 과르디올라가 이끄는 맨시티는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맨체스터유나이티드와 도르트문트를 각각 상대한다. 이후 7월 29일에는 한국에 들어와 30일에는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과 친선전을 치를 예정이었다. 성사 직전까지 갔던 이번 친선전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전북이 제출한 맨시티와의 친선경기 신청서를 불허하며 사실상 무산됐다.

연맹의 관계자는 "현재 심판 매수 의혹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자숙을 통해 팬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판단에 국제성 경기는 자제할 것을 전북에게 공식으로 전달했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시즌 중 해외 구단과의 초청 경기는 연맹과 대한축구협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두 단체 중 한 단체라도 불허 할 시 경기 개최가 이루어 질수 없는데, 연맹이 이를 불허한 것이다.

전북은 내년 FIFA U-20 월드컵을 앞두고 개막도시인 전주의 축구 붐 조성을 위해 맨시티와의 친선전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

전북의 관계자는 "연맹에서 불허 입장을 전달해 온 것은 사실이다"라며 "사실상 초청 경기는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세계 최고의 명장 펠 과르디올라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의 세르히오 아구에로를 비롯한 야야 투레, 케빈 데 브루잉, 다비드 실바, 페르난지뉴, 빈센트 콤폰니 등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을 직접 눈앞에서 보기를 기대했던 축구



팬들에게는 슬픈 소식이 됐다. 연맹의 불허 배경에는 지난 달 전북 구단 스카우트 차모 씨가 2013년 심판 2명에게 총 500만원을 전달한 정박 혐의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징계수위를 논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국제성 경기는 팬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낼 것을 우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클리블랜드 창단 후 NBA 첫 우승

파이널전 벼랑끝에서 1승3패 3연승 '역전 드라마' 연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역전 드라마 써냈다. 정규리그 최다승 기록을 세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넘고 창단 이후 첫 우승을 일궜다.

클리블랜드는 2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글랜드의 오라를 아레나에서 벌어진 골든스테이트와의 2015~2016 미국프로농구(NBA) 파이널(결승·7전4선승제) 7차전에서 경기 종료 53초 터진 카이리 어빙의 결승 3점포에 힘입어 93-89로 승리했다.

지난 시즌 골든스테이트에 2승4패로 밀려 창단 첫 우승 기회를 다음으로 미뤘던 클리블랜드는 설욕전을 펼치면서 1970년 창단 이후 첫 우승을 맞았다.

파이널에서 1승3패로 밀렸던 클리블랜드는 5, 6차전을 내리 승리를 거두고 7차전까지 이기면서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냈다. 파이널에서 1승3패로 밀렸다가 내리 3연승을 거두고 우승한 것은 클리블랜드가 NBA 사상 처음이다.

1951년 로체스터 로열스(현 새크라멘토 킹스), 1968년 보스턴 셀틱스가 1승3패로 밀렸다가 승부를 7차전까지 몰고갔으나 모두 7차전에서 패했다.

클리블랜드의 우승으로 이 도시는 1964년 미국프로풋볼(NFL) 브라운스 이후 52년만에 미국 메이저 스포츠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파이널 최우수선수(MVP)는 대역전극을

이끈 '킹' 르브론 제임스의 차지가 됐다. 파이널 5, 6차전에서 41점씩을 몰아치며 1승3패로 밀려있던 클리블랜드의 반격을 이끈 제임스는 27득점 11리바운드 11어시스트로 '트리플더블'을 작성해 클리블랜드 승리에 앞장섰다.

어빙은 경기 종료 53초를 남기고 결승 3점포를 꽂아넣는 등 28득점 6리바운드를 기록, 클리블랜드 우승을 이끌었다.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73승을 거뒀던 팀 최다승 기록을 세운 골든스테이트는 목전에 뒀던 우승을 놓쳤다.

사상 처음으로 만장일치 정규리그 MVP를 차지했던 스테판 커리는 이날 17득점 5리바운드로 아쉬움을 남겼다. 클레이 톰슨도 14득점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4쿼터 초반 클리블랜드에 리드를 뺏겼던 골든스테이트는 커리, 톰슨의 중장거리포가 살아나면서 역전했다.

클리블랜드도 제임스의 자유루 3개와 3점포로 맞서며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89-89로 맞선 상황에서 양 팀은 3분 넘게 득점에 실패하면서 광활히 맞섰다. 경기 종료 53초를 남기고 승부의 추가 클리블랜드 쪽으로 기울었다. 클리블랜드는 어빙이 3점포를 꽂아넣으면서 92-89로 리드를 가져갔다.

클리블랜드는 경기 종료 10초를 남기고 제임스가 반스의 파울로 얻은 자유루 2개 가운데 1개를 성공시켜 승기를 잡았다.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르브론 제임스(사진 오른쪽)가 2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글랜드의 오라를 아레나에서 벌어진 골든스테이트와의 2015~2016 미국프로농구(NBA) 파이널(결승·7전4선승제) 7차전에서 스테판 커리의 슛을 막아내고 있다.

다. 클리블랜드는 골든스테이트가 마지막 등 득점에 실패해 그대로 우승을 확정했다. 공격 기회에서 커리의 3점슛이 빛나는

고창북부자매 전국배드민턴대회 성료

제8회 고창북부자매 국민생활체육 전국배드민턴대회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전국에서 선수 및 임원, 가족 등 1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고창군배드민턴연합회(회장 박래필)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 경기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610팀의 많은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60종목에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19일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박우정 고창군수, 이상호 군의장, 유성업 국회의원, 한동희 전라북도 배드민턴연합회장, 박래필 고창군배드민턴연합회장 등 전국의 많은 배드민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고창북부자매 전국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대회 결과 ▲90대 혼복A급 이상 노을길, 노은진 ▲남복A급 이상 박희훈, 이윤수 ▲여복A급 팀이스트리 한정임, 박명성 ▲40대 혼복A급 고창 이수길, 윤민 ▲남복A급 JBA 박영재, 임종술 ▲여복A급 열린클럽 김은자, 정영미 ▲45대 혼복A급 이상 박세근, 고은경 ▲남복A급 남원 김춘수, 오철호 ▲여복A급 새모양 정영하, 조현숙 ▲50대 혼복A급 고창를림 유철희, 박용순 ▲남복A급 승배연합 장보윤, 이상철 ▲여복A급 민원 고민자, 박순채 ▲지장 남복 고창 윤정민, 이철우 ▲여복A급 MT클럽 정미진, 진보람이 우승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익산시청 육상·펜싱선수단 전국대회 메달 풍작

익산시청 육상선수단과 펜싱선수단이 전국규모 대회에 나가 메달을 싹쓸이 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익산시청 육상선수단은 최근 강원도 고성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6 고성봉인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으며, 펜싱선수단은 17일까지 강원도 양구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2016 전국남·녀 종합별오른펜싱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차지했다.

여자 원반던지기 조혜림(31세) 선수는 50미터 33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중거리 신소담(24세) 선수는 1,500미터에서 4분 40초 34의 기록으로 금메달, 미녀새 최예은(23세) 선수는 여자 장대높이뛰기에서 4미터로 금메달을 추가했다. 여자 포환던지기 이비나(21세) 선수는 14미터 92로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여자 창던지기 이혜림(27세) 선수와 남자 포환던지기 김현배(25세) 선수는 51미터 39와 17미터 22로 동메달을 추가하며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해 실업 최강팀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다.

남자 에베 개인전에 출전한 권영관(29세) 선수는 김상민 선수를 15대 13으로 이기고 정상에 올랐다. 여자 사브르 개인전에 출전한 김관소(미녀) 겸 김지연(28세) 선수는 준결승전까지 올랐으나 아쉽게 저 동메달을 획득했다.

/익산=장영원기자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재임 위해 일시 사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재선을 위해 일시적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정 회장은 20일 오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끝으로 회장직을 사임했다. 재임을 위해서다. 대한체육회의 각 종목단체장 선거표준규정에 따르면, 현직 회장이 차기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회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대한축구협회는 근래에 부회장 중 직무대행자를 정하고 오는 22일 이사회를 개최해 차기 회장 선거를 위한 건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한편, 축구협회는 이날 이사회와 임시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고 세종시 축구협회의 정회원 가입을 승인했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성로 1482 / 063) 320-0114